

“오르긴 올랐는데...”

돼지고기 값, 엇갈린 전망

“아프리카돼지열병 탓에 돈육가격 올라”
“재고 많아 큰 영향 없어 장기 영향 봐야”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망은 엇갈린다. 일부 유통업체는 중국 등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African Swine Fever)이 결국 국내 돼지고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돼지고기 재고량이 충분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가격에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가격이 3~5%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를 볼 때 이번 가격 변화는 이례적으로 크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전 세계 49.3%)이자 생산국(47.8%)인 중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직격탄을 맞고 돼지고기 수입량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있다. 이로 인한 공급 불균형이 이번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 측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병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은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편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나타난 후 현재까지 중국에서만 1억마리에 달하는 돼지가 살처분 됐다. 이 병은 치사율 100%인 바이러스 출혈성 돼지 전염병으로, 구제역과 달리 예방 백신이 없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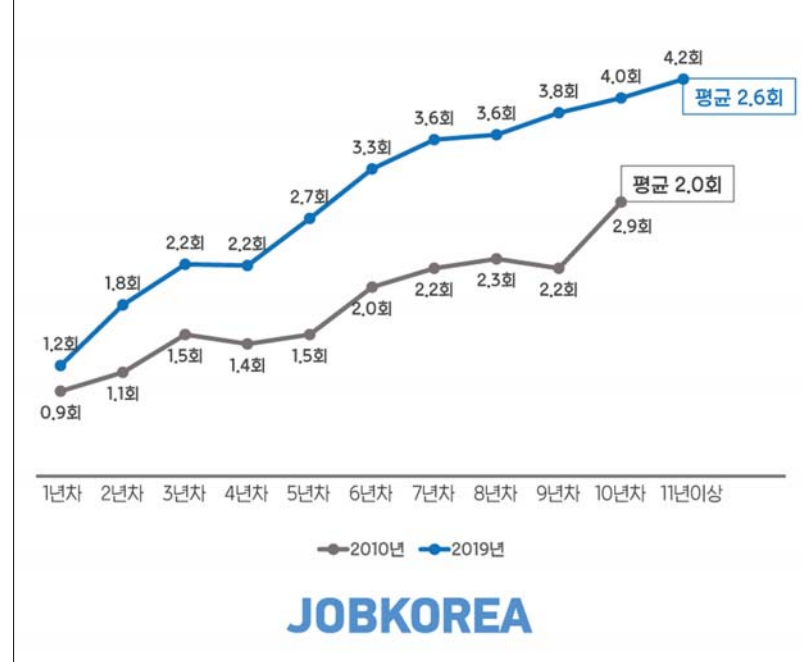
뉴시스

10년차 직장인 이직 횟수 ‘평균 4회’

잡코리아, 연차별 이직 경험...경력1년차 64.7% “이직 해봤다”

직장인 경력연차별 평균 이직횟수

※ 직장인 조사(2010년 901명/2019년 1,067명) / 자료제공: 잡코리아



직장생활을 10년여 하는 동안 직장인들은 평균 4번 정도 회사를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조사를 진행한 2010년 10년차 직장인의 평균 이직 횟수 2.9회에 비해 약 1회 늘어난 수준이다. 잡코리아가 직장인 1322명을 대상으로 ‘연차별 이직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래 1회 이상 이직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84.6%의 직장인이 ‘있다’고 답했다. 또 남성 직장인(78.0%)보다 여성 직장인(88.5%)이 높아 여성 직장인 중 이직 경험이 있는 사람이 10% 이상 더 많았다.

경력연차별 평균 이직횟수도 연차와 비례해 증가했는데, 경력 1년차 직장인의 이직횟수가 평균 1.2회로 조사됐으며, 사회초년생 시절 원하는 직장을 찾기 위해 이직을 경험하는 직장인들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풀이됐다. 경력3~5년차 직장인의 이직횟수는 평균 2회를 넘었다. 3년차와 4년차 직장인의 이직횟수가 평균 2.2회로 같았고, 5년차 직장인은 평균 2.7회로 증가했다.

이후 6년차부터 9년차 직장인의 이직횟수는 평균 3회를 넘었고, 경력 10년차 직장인은 평균 4회, 경력11년 이상의 직장인 이직횟수는 평균 4.2회로 높았다. 직장인들의 연차별 이직횟수는 2010년 동일조사에 비해 연차별로 약 1회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전체 직장인의 평균 이직횟수도 올해 2.6회로 집계되어, 2010년(2.0회) 보다 0.6회 높았다. 특히 2010년 경력1년차 직장인의 이직횟수는 평균 0.9회로 1회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조사 결과 경력1년차 직장인의 이직횟수는 1.2회로 소폭 높았다. 2010년 경력2년~5년차 직장인의 평균 이직횟수는 연차별로(1.1회, 1.5회, 1.4회, 1.5회) 각 1회 이상의 수준이었으나 올해 조사결과를 각 1.8회, 2.2회, 2.2회, 2.7회로 2회 이상에 달했다. 2010년 경력10년차 직장인의 이직횟수도 평균 2.9회였으나, 올해 조사결과 경력10년차 직장인의 이직횟수는 평균 4회로 조사됐다. 연차별로 이직횟수가 각 1회 정도씩 증가한 것이다. 직장인들은 이직 결심 이유 1위로 ‘낮은 연봉’을 꼽았다. 이직을 결심하는 주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연봉에 대한 불만족 때문’이라는 직장인이 47.0%(응답률)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사에 대한 불만/불화(28.0%)’이나 ‘복지제도에 대한 불만(27.0%)’ 때문이라는 직장인이 많았다. 이직 결심 이유를 연령대별로 조사한 결과, 20대 직장인 중에는 ‘연봉에 대한 불만족(48.2%)’ 다음으로 ‘복지제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해(30.1%)’ 이직을 결심했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이어 ▲상사에 대한 불만족(29.8%)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27.7%) ▲더 큰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24.0%) 이직을 결심했다는 직장인이 많았다.

뉴시스

‘클라우드’ 프리미엄 맥주 강자 자리매김

출시 5주년을 맞은 롯데주류의 ‘클라우드’가 국내 프리미엄 맥주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7일 롯데주류에 따르면 유럽산 홉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를 제조 과정 중 다단계로 투여하는 ‘멀티 호핑 시스템(Multi hopping system)’을 적용, 특유의 풍부한 맛과 향을 최대한 잘 느낄 수 있다. 세계 최대 규모 홉 산지인 독일 할러타우에서 생산한 홉을 50% 이상 사용해 얻을 수 있는 할러타우 인증도 획득했다.

특히 원료의 맛과 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오리지널 그라비티(Original gravity)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 등 유럽 정통 맥주가 채택하는 공법으로 발효 일액에 추가로 물을 타지 않고 발효 농도 그대로 제품화한다. 클라우드의 남성 모델 일색이었던 맥주 광고시장이 여성을 내세운 점도 눈길을 끌었다. 1대 전지현에 이어 2대는 설현을 내세웠고, 지난 2월부터는 김태리가 100% 올몰트 맥주 클라우드의 차별화된 맛을 소비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매년 여름 해운대 등 피서지와 도심 푸어 호캉스에서 풀 파티를 여는 등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프리미엄 맥주의 입지를 굳힌 클라우드의 더 좋은 품질이 이벤트로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카카오프렌즈 한정판 특별우표 10종 출시

카카오프렌즈 캐릭터가 우표에 들어간다. 카카오IX는 카카오프렌즈가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공식 우표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카카오IX에 따르면 이번 특별우표 발행은 국내 대표 캐릭터 브랜드로서 글로벌 시장에 K-캐릭터의 우수성과 문화를 성공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카카오프렌즈의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기획됐다. 카카오프렌즈 우표는 총 10종으로 제작됐다. 라이언을 비롯해 자진거를 타는 이피치, 도도하게 걷는 네오,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기는 제이지 등 현대인들의 일상과 닮은 캐릭터 8종의 단독샷 또는 커플샷을 연출했다. 특별우표는 오는 30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한정수량 선착순 판매될 예정이다. 카카오IX 관계자는 “우표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녹여져 있는 만큼 이번 카카오프렌즈의 공식 기념우표 발행은 그만큼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며 “현대인들의 일상과 감정을 공감하고 대변할 수 있는 국민 K-캐릭터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카카오프렌즈 우표는 총 10종으로 제작됐다. 라이언을 비롯해 자진거를 타는 이피치, 도도하게 걷는 네오,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기는 제이지 등 현대인들의 일상과 닮은 캐릭터 8종의 단독샷 또는 커플샷을 연출했다. 특별우표는 오는 30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한정수량 선착순 판매될 예정이다. 카카오IX 관계자는 “우표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녹여져 있는 만큼 이번 카카오프렌즈의 공식 기념우표 발행은 그만큼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며 “현대인들의 일상과 감정을 공감하고 대변할 수 있는 국민 K-캐릭터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